

## 양극화 시대의 형성기 가족을 위한 정책 방안\*

김규원\*\*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형성기 가족의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부모의 지원여부에 따라 형성기 가족의 삶의 질과 자녀출산 및 양육이 크게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적 지원체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국가의 공적 지원을 정책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형성기 가족의 사회적 연착륙을 돕고 나아가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예방적 대응책이라고 주장한다.

주제어: 형성기 가족, 가족정책, 사회 양극화

### 1. 들어가는 말

가족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가족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계속 변해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가족의 범위를 획정하는 일이나 범주를 규정하는 일이 쉬운 듯해도 매우 어려운 것이다(이광규 외, 1996). 다시 말해서 가족을 정의하고 유형화하는 작업만 해도 학자사이엔 평생 논란거리이다.

이런 어려움을 전제하고서, 형성기 가족에 대한 정의와 그 학문적 관심의 필요성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형성기 가족은 2인 이상의 비혈연 성인이 독자적인

\* 본 연구는 한국사회학회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의 일부 내용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교육사회학 전공. sockim@knu.ac.kr

가족 단위를 이루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공동의 생활 공간과 살림살이를 구축하여 타인들로부터 하나의 독립된 가정이 성취되었음을 인정받을 때까지의 가족 단위이다. 이는 대체적으로 20대에서 30대 초반 연령에 있는 두 남녀의 연애와 결혼, 그리고 첫 자녀출산이라는 일련의 계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경험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체적인 경험과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은 현상이 대두하고 있는 바, 최근 우리나라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만혼 또는 미혼인의 증가와 그로 인한 저출산의 문제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의 형성기 가족 구성 과정에 큰 변화가 진행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관심은 그다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저 인구학적 구조상의 변화라는 계량적인 지표로써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형성기 가족의 실태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소홀히 했던 인상을 지울 길 없는 것이다.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연령대에 있는 젊은 층은 자신의 결혼을 통하여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형성기를 맞이하는데,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경험하는 바가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예컨대, 근대화 이전 우리 사회에서는 가문 대 가문의 결합이라는 성격이 혼인제도의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에 형성기 가족의 특성을 기술하는 데 흔히 언급된 내용으로는 호된 시집살이가 그 실패의 하나이다. 그 반면에 산업화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생겨나고 민주화로 인한 인권신장이 이루어지면서 형성기 가족 성원은 예전에는 현실화되기 힘들었던 낭만적 사랑에 의한 연애생활이 가능해졌으며, 신혼시에는 허니문 시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할 것이다. 물론 사회계층별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다수 사회성원의 기대와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 들어 취업난, 혼수비용의 부담과 주택마련의 어려움, 자녀양육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민과 고통의 시간을 감수하는 젊은 층이 늘어간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이미 경험한 사회적 사실인데, 특히 이른바 '20대 80사회'라는 양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형성기 가족은 사회계층별로 경험하는 양상이 크게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형성기 가족이 겪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 문제는 가족 가치관과 혼인규범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산 현상과 같은 사회성원의 재생산 문제와 직결되며, 나아가서는 인구고령화를 가속화하는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형성기 가족원으로 하여금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돕는 것이 가족정책의 근간을 차지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때늦었지만 형성기 가족의 사회 연착륙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사족을 달면, 여태까지 우리나라 가족 정책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중심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사후약방문과 같은 대중요법식 정책 처방이다.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성기 가족 성원에 대한 정책 시행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대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은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보다 한 차원 위인 재생산적 복지(reproductive welfare)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그리고 출산 복지(procreative welfare)야말로 재생산 복지의 토대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줄 안다.

요컨대, 형성기 가족은 지금까지의 가족 유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앞으로의 가족 유형을 배태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의 동태적이며 변증법적인 역동성을 가장 잘 함축적으로 포착 가능한 것이다. 그런 만큼 가족 연구에서 앞으로 가장 주목받아 마땅한 가족 형태의 하나가 바로 형성기 가족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형성기 가족에 대한 시험적인 탐색을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급한 측면이 있지만 형성기 가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우리나라 형성기 가족의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양극화 시대가 전개되기 시작한 IMF환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최근의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야기되고 있으나, 이 연구는 현 시점을 양극화 시대라고 전제하여 시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이다. 하나는 기존의 사회인구학적 통계 가운데 형성기 가족과 연관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배경적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는 계량적 분석표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인데,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형성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서 숲의 측면을 분석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형성기 가족에 해당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질적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나무 몇 그루를 대상으로 삼아 살펴보는 일이다. 이러한 질적 사례 분석의 대상이 된 자료는 2006학년도 경북대학교 사회불평등 수강 학생들의 조사보고서가 토대가 되었다. 모두 48부가 분석 대상이 되었으며, 조사방법은 학생들이 스스로 임의 선택한 대상자를 면접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다.<sup>1)</sup> 이 연구의 질적 분석대상이 된 자료에는 면접대상자 및 배우자의 기본 인적사항(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가족관계, 부모의 사회계층적 지위), 교제 기간과 교제 방식, 결혼비용과 부담 형식, 신혼여행지, 주거형태, 주택소유 여부, 주거비용 액수와 주거비용 마련방식, 자녀수와 양육비 및 양육방식, 한 주간의 평균적인 생활양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 형식은 자율적으로 문답한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경우는 수강자 본인이 직접 면접조사한 것을 정리한 것이고, 일부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답한 형태를 취한 것도 있다.

위의 두 가지 종류의 자료분석은 사회현실에 대한 간접적인 접근으로서 지닌 한계점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등장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려는 실사구시적 요청에서 시도하는 것이다. 곧 본 연구의 의의는 형성기 가족에 주목함으로써 저출산 및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1) 참고로 수강인원은 66명 등록이었으나 3명이 수강취소한 상태이고, 나머지 63명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 주제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가족형성기의 젊은 층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졸학력의 청년실업자에 대한 문답조사 보고서였다. 학점산정에 연관된 보고서 제출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강제성이 개입된 조사방법이지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것은 그나마 확실적인 강제성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담은 셈이다. 전자의 주제를 담은 보고서가 48부였으며 후자의 주제를 담은 것이 15부였다. 양자 모두 면접조사이지만 규격화된 인터뷰(framed interview) 양식을 취하였다.

새로운 각도에서 마련해보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 만큼 이 연구에서의 정책 제안은 사회학적 상상력을 토대로 하여 접근하는 셈이다.

### 3. 분석결과

#### 1) 형성기 가족에 연관된 사회인구학적 배경

기존의 통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요 생활 관심사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은 IMF 환란위기를 경험한 이후일지라도 경제 문제보다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건강이 중요한 생활관심사라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이 1998년도에 36.7%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43.9%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결혼 및 이성교제, 자녀양육 및 교육, 가족간의 관계, 자식 걱정을 중요 생활관심사라고 응답한 비율은 1998년도에 14%이었던 것이 2002년도에는 12.1%로 근소하나마 더 낮아진 것이다. 2002년도 한해에 해당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20대 연령층은 주된 생활관심사가 직장 및 구직이라고 응답한 경

<표 1> 중요 생활 관심사 (%)

	건강	경제	주택 주거	직장 구직	노후 문제	결혼 이성교제	학업 진학	자녀양육 교육	가족 간의 관계	자식 걱정	기타	
1998	36.7	30.5	-	8.0	-	3.0	9.3	6.6	1.5	2.9	1.4	
2002	44.9	34.5	3.1	6.5	1.5	2.5	7.4	4.6	1.2	1.8	2.0	
	15~19세	12.9	14.5	1.0	6.6	-	2.2	58.2	0.0	1.9	-	2.8
	20~29세	24.5	29.5	3.3	19.1	0.3	7.4	10.0	1.8	1.5	-	2.5
	30~39세	41.8	29.5	5.2	5.6	0.3	3.2	0.6	9.8	1.2	0.3	2.4
	40~49세	52.9	26.6	3.3	2.8	1.1	0.4	0.4	8.3	0.9	1.5	1.8
	50~59세	61.2	22.1	2.2	1.8	3.3	0.1	0.1	2.0	1.1	4.5	1.5
60세 이상	70.1	15.5	1.5	0.6	4.8	0.0	0.0	0.2	0.7	5.4	1.2	

출처: 통계청, 2004 한국의 사회지표.

〈표 2〉 15세 이상 혼인상태 별 인구구성비(20~39세)

(%)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상
1990	20~24세	12.10	1.52	0.0	0.01	0.0
	25~29세	5.33	8.05	0.02	0.04	0.0
	30~34세	1.26	11.56	0.09	0.13	0.0
	35~39세	0.31	9.28	0.17	0.17	0.0
1995	20~24세	11.29	1.24	0.0	0.0	0.0
	25~29세	5.68	6.33	0.01	0.03	0.0
	30~34세	1.62	10.53	0.06	0.12	0.0
	35~39세	0.60	11.04	0.16	0.24	0.0
2000	20~24세	9.90	0.67	0.0	0.01	0.0
	25~29세	6.27	4.93	0.01	0.06	0.0
	30~34세	2.20	8.86	0.04	0.17	0.0
	35~39세	0.86	10.20	0.11	0.34	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해당년도.

우가 19.1%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에 관한 관심사에 응답한 비율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응답 비율이다. 이렇게 보면 가족형성기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이나 이성교제보다도 직장 및 구직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심사는 곧 15세 이상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를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표 2〉는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혼인상태를 조사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1990년에서 2000년의 10여 년 동안에 미혼자의 구성이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으며, 배우자를 가진 비중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인데 특히 25세에서 3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원수별 가구분포를 보더라도 1인가구 구성비가 1975년도에는 4.2%이던 것이 줄곧 늘어나서 2000년도에는 15.5%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1인가구 중 미혼자의 연령별 분포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 〈표 3〉이다.<sup>2)</sup> 2000년도의 경우 1인가구 중에서 미혼자인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2) 아쉽게도 기존의 통계자료에서는 2000년도의 경우만 혼인상태별로 연령별 분포를 실고 있다.

〈표 3〉 1인 가구 중 미혼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2000년) (%)

	남	여
19세 이하	1.07	1.02
20~24	3.85	4.87
25~29	8.73	4.80
30~34	6.17	2.60
35~39	3.25	1.64
40~44	1.81	1.04
45~49	0.64	0.52
50세 이상	0.58	0.64
계	26.1	17.13

출처: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43.2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미혼자의 비율이 13.53%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이 30에서 34세 사이로서 8.77%이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도 결혼 적령기인 25세에서 39세 사이에 미혼으로 남아있는 비율이 더 높다. 짐작컨대 구직 및 직장 문제와 관련된 경제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지위 하락이 그 주된 이유라고 추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통계치를 토대로 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개인 중심적 사고가 증시되는 풍조와 더불어 산업화의 결실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경제적 불평등 현실을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추세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breadwinner로서의 남성 가장 역할을 여전히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남성의 구직 및 직장 불안 문제는 미혼을 강요받는 상황임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결혼을 한 경우라도 자녀양육 및 교육비의 증가와 주거비 양등으로 인한 가계부담 문제는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표 4〉는 배우자가 있는 부인들의 가족계획 실천율과 인공임신중절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가족계획 실천율이 2000년에는 79.3%에서 2003년에는 84.5%로 증가하고 있으며, 임신을 한 경우에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90년대 이후 2000년까지 줄어들다가 2003년에는 가임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율이 오히려

〈표 4〉 유배우 부인의 가족계획 실천율 및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가족계획 실천율(%)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부인 1,000명당 건수)				
			20~24	25~29	30~34	35~39	40~44
1991	79.4	54	186	112	60	21	6
1994	77.4	49	105	94	63	25	1
1997	80.5	44	79	55	49	16	3
2000	79.3	39	53	33	33	12	1
2003	84.5	40	74	38	30	21	6

출처: 통계청, 2004 한국의 사회지표.

려 다시 증가해가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한 출산율 하락 경향이 대두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집합적 속성의 통계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추론해내는 데 도움이 이 되지만, 아쉽게도 양극화 구조에서 기인하는 관련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2003년 이후 현시점까지의 추세와 더불어 계층하락을 경험한 집단에 대한 가족해체 및 불안정 문제를 짚어낼 수 있는 통계치가 필요한데도 아직까지 접할 수 없는 현실이다. 향후 형성기 가족 정책의 구체적인 수립을 위해서, 그리고 효과 있는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러한 부문의 사회통계조사를 기대해 마지않는 것이다. 본 연구가 탐색적 성격의 사례분석을 취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 2) 형성기 가족 사례의 질적 분석

본 연구의 질적 분석대상이 된 48부는 면담대상자의 결혼식 이행여부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혼례식 없이 동거하는 경우가 5 사례, 조만간 결혼예정인 경우가 11 사례,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경우가 32 사례이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형성기 가족에 영향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 가운데 가장 주된 것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원여부임이 확인 되었다. 곧 결혼식 비용 부담과 주거지 마련, 그리고 자녀양육 공동보조 면에서 시부모나 친정 부모로부터의 도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형성기 가족 성원의 삶의 차원이 다르게 전개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결혼식 비용 면에서 신랑과 신부의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적어도 양가 부모의 지원금이 보태질 경우에 '남다른'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호화사치 결혼식은 일부 최상층의 부모를 둔 젊은이들에게 해당하며, 대부분은 실속형으로서 혼례 그 자체보다는 혼수 및 주택 마련에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부모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 신랑 측에서는 주거지로서 주로 아파트 구입을 부담하는 반면에 신부 측에서는 인테리어 및 살림살이 장만을 감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유로 결혼식 없이 부모의 동의 내지는 묵인 아래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

둘째, 신접살이를 위한 주거지 마련 시에 본인들의 소득이 낮으면 부모의 도움이 없을 경우 전세 및 임대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어느 정도 고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자가 소유를 위한 저축을 하더라도 자녀출산이나 문화·여가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소득이 낮은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부부중 한 사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집 마련을 위한 저축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녀출산을 미루고 있으며 심지어 기타 문화적 여흥마저 향유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셋째,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아들딸 구별 없이 하나로 족하다는 태도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자녀 출산 자체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리고 맞벌이 하는 경우에 향후 자녀 보육을 위해서는 부인 측이 사직을 고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미 유아를 둔 경우는 대체로 양가 어느 한쪽의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고 일부는 전문 보육시설에 맡기는 형편이다.

넷째, 형성기 가족 성원의 문화적 향유 면에서 사회계층별로 차이가 뚜렷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적령기 젊은 층으로 하여금 점점 더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요사이 형성기 가족 성원은 생존의 문제보다도 생활의 문제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저 삼시 세 때 식사문제 해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신들의 문화적 생활수준에 많은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출산이 자신의 문화적 향유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자녀를 아예 갖지 않으려는 성향마저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승용차 보유가 주택구입보다도 앞서고, 또한 자녀출산보다도 더 우선

시하는 것을 당연한 양 받아들이는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최근 젊은 세대는 거의 연애결혼을 하는 양상이고 중매결혼은 극소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양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사한 계층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짙은 편이다. 신혼여행지로는 해외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에 국한되지만 부담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혼인비용절감을 위해 신혼여행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이렇게 보면, 형성기 가족 단계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젊은 층은 사회계층적 지위에 따라 운명을 다르게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사회계층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부모의 도움을 통하여 결혼식 비용과 주거지 마련 및 신집 살림살이 장만이 손쉬워지고 그 만큼 문화생활을 향유할 경제적 여유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의 사회계층적 지위가 중하 이하의 경우는 대부분이 부모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식 및 신혼여행 비용을 절약해서 거주지 마련 및 살림살이 장만에 치중할 수밖에 없으며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생활을 영위하고 마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적 차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사회계층에 따라 가족(생활)의 의미와 내용이 질적 차별화를 낳고 있는 점이다. 이번 사례 분석의 결과를 놓고 보면, 형성기 가족 단계에 도달한 우리나라 젊은 층은 대체적으로 가족 생활이라는 것은 곧 부부생활이고, 부부생활의 중심은 문화생활이며, 그리고 선호하는 문화생활은 웰빙을 기반으로 하는 레저활동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그런 만큼 자녀의 출산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자녀의 양육과 교육이 이러한 문화여가 활동을 향유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양가 부모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자녀출산과 양육 문제를 비교적 용이하게 풀어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자녀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측면이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 부모의 사회계층적 지위가 형성기 가족 성원의 결혼 및 출산 문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현실임이 드러난다.

## 4. 정책 대안의 모색

### 1) 형성기 가족 관련 사회 트렌드

형성기 가족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학문적인 차원에서라기보다는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인 접근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우리사회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가운데 형성기 가족구성원과 연관된 것으로는 청년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병역의무기피 문제, 공무원시험 과도출원 문제, 계층간 소득불평등 문제, 지역간 격차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계별 문제에 대한 각개격파식 정책 대응은 관련 부서별 관료제적 접근으로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소기의 성과를 얻기보다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사회학적 상상력에 토대로 한 정책적 발상은 이러한 개별적인 사안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조적인 모순과 제도적인 결함을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하나의 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할지 모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한도로 묶어 두려는 바람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기존의 관련정책 가운데, 최근에 도입된 '새로마지플랜 2010'을 중심으로 그 제한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전시켜 가고자 한다. '새로마지플랜 2010'은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구조변화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책으로서 2006년 7월 14일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인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확정된 안이다. 정부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양육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며 주택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일단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체제구축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따르면, 재정부담을 너무 의식해 과감한 대책을 내놓는 데 미흡했다는 점과 미혼모나 '젊은 싱글족'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젊은 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년실업 대책을 연계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다.

한국 노동 연구원이 2004년 4천 76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7차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분석하여 4월 30일에 내놓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하위

계층의 가구소득 격차가 최대 50배에 달하는 등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계층의 가구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0년 30%를 넘어선 뒤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최하위 계층 가구의 소득몫은 계속 줄어들어 2004년도에는 0.6%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가구의 66.2%가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는데,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인 하위계층(소득분위 0~30%)은 사교육비가 매우 부담된다고 답한 경우가 29.6%에 해당하는 등, 65.8%가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계층(소득분위 70~100%)은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23.4%,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이 41.3%, 합하여 64.7%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 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 하위계층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8만 7천원에 불과한 반면 상위계층은 29만 4천원으로 상하위 계층간 사교육비 격차가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취업포털 커리어가 2006년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맞벌이 직장인 1천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부부의 월평균 소득이 '200~400만원 미만'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9%로 가장 많았고, '200만 미만' 이 26.0%, '400~600만원 미만' 이 19.9%, '600만원 이상' 이 3.2%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맞벌이를 안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37.4%가 '400~600만원 미만' 이라고 답하였고, '200~400만원 미만' 이라는 응답은 23.8%, 그리고 '소득에 상관없이 맞벌이를 하겠다' 는 응답이 12.9%로 조사되었다. 또한 맞벌이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응답자의 절반 정도(46.5%)가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를 답하였고, 그 밖에 '주택마련을 위해' 가 24.4%, '자아실현을 위해' 가 18.5%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맞벌이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응답자의 52.1%가 '육아문제' 라고 답한 것을 보면, 우리 사회는 육아와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2006년 8월 11일 발표한 '아시아의 미래 소비자시장을 형성하는 10가지 역동적인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젊은 싱글족' 인구는 2004년부터 연 평균 0.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4년에 이르면 고소득 전

문직종에 종사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20~35세 인구가 66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저출산으로 인해 20~35세 전체 인구는 연평균 1.4%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연구조사의 결과이지만, 형성기 가족과 연관지어 볼 때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짚어낼 수 있다. 소득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그 부담 정도의 양극화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부부가 맞벌이하는 이유로서 바로 교육비 증가를 포함한 경제적 부담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아 문제로 인해 맞벌이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기혼자에게는 육아 및 교육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정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결혼생활과 자녀양육의 부담 때문에 '젊은 싱글족'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종의 젊은 층에서 결혼을 기피하고 미혼으로 남기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아가는 추세인데,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를 바꾸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다.

## 2) 형성기 가족을 위한 정책 제안

주지하듯이, 오늘날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는 결혼은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며 더구나 자녀출산은 자동차 보유보다도 우선순위에 밀린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새로마지플랜 2010'에서 담고 있듯이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만을 통해서 성공할 수 없다. 바로 젊은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데 부가적인 보상을 제도화함으로써 유인기제를 삼을 수 있다. 물론 보상책으로 내놓은 유인기제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비용고효율의 선순환체제를 낳게 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마지플랜 2010'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몇 가지 할 수 있다. 첫째는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기존 자녀수에 관계없이 임신부에 대하여 국민차 구입시 취득세 면제 등 세금감면과 같은 보조금 지급과 더불어 어린이 보호장구를 차내에 설치할 경우 전액 무상 지원하는 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택지원에서 역시 기존의 자녀수에 상관없이 형성기 가족인 신

혼부부가 임신 사실만 증명되면 우선입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입양아동 양육 지원에서 전문직 싱글족에게 입양자격을 부여하여 입양아동의 부양자 선택권을 확대함과 더불어 고소득층 미혼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책과 함께 관련 사안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취업문제와 결혼문제, 출산문제, 그리고 주거지역문제를 연계해서 접근하는 일이다.<sup>3)</sup>

요즘 대학생들 대다수가 공무원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와 공사 취업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 앞으로 확대시행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우선 국가직 9급 시험부터 일부 특정 지원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시행할 만하다. 사실 취업난이 가속화되면서 공무원시험은 이제 대다수 대학생들에게 많은 준비를 요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10만명 안팎을 보이던 출원규모가 2002년을 기준으로 폭등하여 이제는 20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률 측면에서도 2006년도의 경우 64.7대 1을 기록하여 1991년에 비해 4.5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출원규모와 경쟁률의 폭등현상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계속 불투명해지고 있는 만큼 직업의 안정성을 점점 더 추구하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우대와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국가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다시 군필자 남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녀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에 대하여 동등하게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sup>4)</sup> 적어도 이를 위한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

3)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현재까지는 거시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온 경향이 짙는데, 조금 미시적 측면에서 출산문제를 취업과 거주지역 문제와 연계해서 정책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4) 참고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자체가 위헌이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형평성을 문제 삼은 것이 판결 내용이라고 본다. 세삼 강조할 것 없이, 여성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징집 의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당하는 현실에서 군필자에 대한 과도한 가산점 부여는 남성에 대한 특혜로서 성차별이라는 주장은 타당한 것이다. 그 논거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여성만이 출산의 고통과 사회적 재생산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없는 현실에서 남성에 대한 군필 가산점은 편파적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하다.

이러한 정책 제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예상한다면, 기존의 가족정책이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하여 양부모 가족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므로, 미혼자, 비혼자, 독신자의 입장에서는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sup>5)</sup> 하지만 전문직 싱글족에게 입양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그에 준하는 지원책을 통해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본다. 아무튼 바람직한 사회정책의 원칙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여 정도에 비례하여 그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투명하게 시행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농간 지역격차의 문제와 부동산투기 문제와 연계해서 가족정책 제안을 한다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보완·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적으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예산 사정상 어려울 것으로 짐작하기 때문에, 최근 5년 이내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지자체의 거주자 가운데, 출산을 한 형성기 가족에 대하여 지원금을 공여하는 형태이다.<sup>6)</sup> 지원 유형은 크게 두 갈래로 시행가능하다. 하나는 주거비 보조 또는 장기임차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형성기 가족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주거마련비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자녀교육문제로 인해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려는 성향을 억누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지자체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녀출산으

---

남녀 모두 국가적 책무와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남성과 출산의 책무를 담당한 여성에게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함께 부여해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는 자신이 수행하고자 자원해도 신체적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국방의 의무나 출산의 책무를 아예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보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억울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억울함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로 신체적 장애에 대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보상을 실현시켜주면 되는 일이라고 본다.

- 5) 이미 세제에서 나타나듯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과 자녀가 없는 부부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는 기혼자 부부보다도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지우고 있다.
- 6) 대구광역시의 경우,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셋째 이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3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로 인한 소득손실을 기회비용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소득안정을 통한 가족형성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지원금을 자녀 일인당 고정액수로 산정하기보다는 소득수준과 비례시키되, 한도 금액을 자녀가 출산되기 직전까지의 부부 평균 최고 임금 수준으로 정함으로써 자녀출산 자체를 부부의 임시 생활기반으로 삼는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화폐 가치 변화에 따라 조정해야 할 것이지만, 첫 자녀에 대한 지원금액은 70만원 내외로 하고 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 평균 최고 임금 수준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sup>7)</sup> 그리고 지원금은 중앙 예산으로 하되, 지원기간은 시·군부 각각 따로 정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시 지역은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하고 군 지역은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하는 것이다.<sup>8)</sup>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첫째, 형성기 가족 가운데 자녀출산을 위해 남편이든 부인이든 임시휴직 또는 영구사직을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자녀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연기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신의 자녀를 스스로 돌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사정에 따라서는 부부 어느 한 쪽은 스트레스 받는 직장생활보다는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 줄 안다. 셋째, 전원생활과 같은 '웰빙'을 선호하는 세대 입장에서는 자녀교육을 위한 소득보전이 지속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 거주를 선택할 여지가 생겨나므로 과잉도시화로 인한 주택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넷째, 입양아동의 경우를 출산과 마찬가지로 인정해줄 경우에 고소득층의 아동양육을 확대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7) 참고로 국가 재정적 부담은 출산 1인당 월 70만원씩 12개월이면 840만원이고, 10만명 대상이면 연간 8천 7백억원에 해당한다.

8) 현재 많은 대학에서 농어촌 자녀를 대상으로 별도의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선발 전형단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군소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들의 명문대학 진학 가능성이 도회지역의 상대 학생들보다도 결코 낮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보완적인 가족정책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자녀교육을 핑계로 한 대도시로의 이주는 줄어들어야 마땅하다.



## 5. 맺음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에서 1980년대 초 인구대체율이 2.1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05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08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건강보험과 연금 등 과중한 노인부양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구추계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2005년 현재 8:1에서 2050년에는 1.4:1로 급증할 추세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과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해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이 중요하다(조운영, 2007).<sup>9)</sup> 이처럼 가족정책은 노인정책, 여성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그리고 부동산정책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접근은 통합적인 정책구상이라 할 것이다. 바로 형성기 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구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이 점에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형성기 가족들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그에 상응하는 지원 정도에 따라서 형성기 가족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과 양육 등 이른바 가족 재생산의 내용과 방식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불평등이 가족 단위에서 대물림되고 있는 현상과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편재해 온 사회불평등은 이른바 '계급구조화(class structuration)'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가족을 매개로 한 계급 재생산이 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파장이 점점 더

9) 이런 의미에서 노동부가 2007년 1월 10일자로 발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바람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 월 60만원을, 그 다음 6개월 동안 월 3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직여성 신규채용 장려금은 출산과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근로자의 취업활동을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형성기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첫째,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이 집중되는 시기로서 시대가족과 처가식구와의 갈등 조정에 대한 수요가 집약되고 있다. 둘째, 그러한 갈등양상은 형성기 가족 성원의 인생설계와 그 실행과 연관된 주거마련과 자녀출산 비용이 다른 사회에서보다 훨씬 더 부담이 크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셋째,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동원의 노력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양가 부모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양가 부모의 지원 여부는 형성기 가족이 한 단계이상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느냐의 단순한 문제라기보다는 지속적인 문화향유를 통한 참삶(well-being)을 구가하느냐 아니면 생존의 수렁 속에 발목이 잡히느냐의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 형성기 가족의 성원들은 환상과 실상의 간극으로 인해 혼란과 갈등에 대한 조정 노력을 사적 수단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점에 이른 형편이다. 바로 이런 까닭에 국가는 정책을 동원하여 공적 수단으로써 형성기 가족의 사회적 정착률을 유도하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개별 가정의 사회적 해체 과정은 단순히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의식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형성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의 약화와 세대간 문화생활 양식의 차이와 같은 상·하부구조의 변동과 직결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가족정책은 변화해가는 사회적 트렌드를 감안하여 다각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한 예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족 가운데서도 특히 형성기 가족에 대한 고려가 가족정책 수립시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적극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기대되는 효과 또한 클 줄 안다.

〈표 5〉 동거하는 사례

		1	2	3	4	5
먼담 대상자	성별	남	남	남	남	남
	연령	28	26	31	24	26
	최종 학력	전문대중퇴	고졸	전문대졸	고졸	고졸
	직업	가게 개업중	공장직원	카페 주방장	방위산업체 근무	하사관
	월평균 소득		140만원	160만원	80만원	130만원
	부모의 계층적 지위	중하	하	하	하	하
배우자	성별	여	여	여	여	여
	연령	23	23	25	24	26
	최종 학력	전문대졸	고졸	전문대졸	고졸	고졸
	직업	전 한의원근무	공장직원	치과근무	치기공 사무실 경리근무	전 공장직원
	월평균 소득	(전 100만원)	90만원	140만원	70만원	
	부모의 계층적 지위	중하	하	하	하	하
교제 기간과 방식	1년 교제후, 2년 동거	1년 교제후, 3개월 동거	2년 교제후, 1년 동거	3년반 교제후, 2년반 동거	4년 교제후, 1년 동거	
인연 계기	휴가 중 만남	친구 소개	대학교 축제	고등학교때 모임	고등학교때 실습	
예상 결혼비용	천만원 이하	천만원			5백만원 이하	
부담형식	저축 및 친지도움	남 700만원 여 300만원			저축	
희망 신혼여행지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생각 못함	필리핀	
주거형태	처가 기거	13평 임대아파트	원룸	별거	연립주택	
주택소유여부	무	임대	임대	무	전세	
주거마련 비용과 방식		저축	적금 오천만원 및 대출 이천만원		저축	
자녀수와 양육방식	1남, 아내 양육	1남 1녀(희망) 보육시설 월30만	1명(예상) 2명(희망) 남자축 부모위탁희망			
부부간 문화 생활 양식	희박한 수준	월 5만원 (주말에 영화관람, 찜질방, 외식)	한달에 두 번 정도 외식, 영화관람	월 50만원 (자동차비포함, 영화관람, 당일여행)	월 1회, 5만원 (영화관람, 외식, 볼링)	

〈표 6〉 결혼 예정인 사례

		1	2	3	4	5	6
면담 대상자	성별	남	남	여	남	여	남
	연령	28	27	24	34	28	29
	최종 학력	전문대졸	고졸	전문대중퇴	대졸	대졸	대졸
	직업		회사원	휴대폰 제조업체 취직	주류유통업체	회사원	영업직
	월평균 소득	120만원	150만원	130만원	150만원	200만원	100~150만원
	부모의 계층적 지위	하	중하	중	중	중	중
배우자	성별	여	여	남	여	남	여
	연령	27	26	24	32	32	25
	최종 학력	전문대졸	대졸	전문대졸	전문대졸	대학원재학(박사과정)	대졸
	직업		시립교향악단 소속	판매물류 직원	자영업(곱창집)	대학원생 미국유학중	치위생사
	월평균 소득	100만원	80만원	200만원			100~150만원
	부모의 계층적 지위	하	중	중		중상	중하
교제 기간과 방식		14개월 교제 시내 카페, 레스토랑 이용, 주로 남자 부담	2년 교제 차를 이용하여 근교 여행, 주로 남자 부담	1년 교제 여자 가게에서 만남 또는 등산, 경비는 번갈아 부담	2년반 교제 디치페이	6개월 교제 극장, 공원, 테마파크 이용 및 드라이브, 공동부담	
인연 계기	친구사이에서 발전	소개팅	친구 소개	아는 동생의 소개	고등학교교배	소개팅	
예상 결혼비용		1,400만원	주택마련 포함 1억		3천만원	4, 5천만원	
부담형식		공동부담	공동부담		여 부담	각자 50%씩	
희망 신혼여행지		필리핀		태국	일본이나 동남아	푸켓	
희망 주거형태		22평 아파트 전세	방2칸 정도 전세		20평 주택 월세 (미국거주예정)	24평 아파트	
주택소유여부		무	무	무	무	무	
주거마련 비용과 방식	저축 및 양가 부모의 도움	저축 및 양가 부모의 도움	저축	저축 및 대출	남측 부모 부담	9,000만원 저축 및 대출	
희망 자녀수와 양육방식	2~3명 보육시설	2명	2명	1~2명	3명 직접 양육	부모의탁 비용은 월1, 20만원	
예비 부부간 문화 생활 양식	도시근교로 소풍, 등산	월2회 영화 관람 여행 외식, 함께 테니스 운동		2주에 한번씩 등산	한주에 한번 영화관람 및 교외드라이브	월2, 30만원 여행, 영화 및 공연 관람, 외식	

〈표 6〉 계속

	7	8	9	10	11	
면담 대상자	성별	남	남	여	남	여
	연령	28	30	24	32	29
	최종 학력	대졸	의학대학원재학	전문대졸	대학원졸	대학원졸
	직업	준공무원	의학 대학원생 전 외국계 회사 근무	비정규직 (역에서 근무)	회사원	교사
	월평균 소득	250만원			200만원	190만원
	부모의 계층적 지위	중	중	중상	중	중하
배우자	성별	여	여	남	여	남
	연령	26	29	29	32	28
	최종 학력	대학원재학	대졸	대졸	대학원재학	대학원재학
	직업	대학원생	초등학교 교사	회사원	대학원생	교사
	월평균 소득	100만원	180만원	150~200만원		190만원
	부모의 계층적 지위	중	중		중상	상하
교제 기간과 방식	2년 5개월 교제, 주로 학교에서 만남	교회, 카페에서 만남, 경비는 주로 남자 부담	4년 교제 데이트는 외곽에서 외식, 주로 남자 부담	2년 교제 주로 교회에서 만남, 비용은 공동부담	1년 6개월 교제 학교, 시내에서 만남, 남자 60%부담	
인연 계기	전공 학회에서 만남	교회에서 만남	선배의 소개	교회에서 만남	캠퍼스 커플	
예상 결혼비용	5천만원	2천만원	주택마련 포함 1억	2천만원	2~3000만원	
부담형식	양측 부모 부담	여측 부담		여측 부담	남녀 반반 부담	
희망 신혼여행지	유럽	제주도나 동남아	태국	일본	유럽	
희망 주거형태	24평 아파트 전세	24평 아파트 전세		32평 아파트 전세	아파트 전세	
주택소유여부	무	무	무	무	무	
주거마련 비용과 방식	1억 내외 예상 회사 임차금 및 저축	8,000만원 예상 주로 남측 부담	저축 및 대출	8,000만원 남측 부모 도움, 공동 저축 및 대출	6~7,000만원 저축 및 대출	
희망 자녀수와 양육방식	1남, 1녀 월100만원 부모의탁	희망하지 않음	1~2명	2명 직접 양육	2명 보육시설 이용	
예비 부부간 문화 생활양식	주1회 3만원정도 영화 및 전시회 관람, 주3회 수영	주1회 외식	2주에 한번씩 등산	여행, 주말에 영화관람 및 외식, 탁구	주말 영화 관람, 쇼핑, 근교여행	

〈표 7〉 결혼식을 올린 사례

		1	2	3	4	5
먼담 대상자	성별	여	남	여	여	여
	연령	27	30	33	25	30대 초반
	최종 학력	대학원중퇴	대졸	대졸	전문대졸	대졸
	직업	주부	대기업 회사원	학원 강사	전 간호조무사	사무직
	월평균 소득		300만원	200만원	전 100만원	150만원
	부모의 계층적 지위	상	상하	중상	중하	중
배우자	성별	남	여	남	남	남
	연령	27	30	36	28	30대 초반
	최종 학력	대졸	대졸	대졸	전문대졸	대졸
	직업	대기업 회사원	공기업 근무	외국계 회사 근무	중소기업 직원	판매· 서비스직
	월평균 소득	250만원	260만원	350만원	250만원	250만원
	부모의 계층적 지위	상중	상중	중상	중	중
교제 기간과 방식	2년 교제 1주일예 3~4번 외식, 비용은 남자 부담	1년 교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영화 뮤지컬 관람, 드라이브, 여행 남자 70%부담	4년 교제 학교 에서 만남, 영화 관람, 도서관 에서 공부 공동 부담	1년 3개월교제 차를 이용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만남, 주로 남자 부담	8년 교제 대학가 주변에서 만남 비용은 공동부담	
인연 계기	중학교 시절 같은 학원	친구의 소개	학교 동아리	친구의 소개	소개팅	
결혼비용	1억 7, 8천	1억 3천	4천만원	신부측만 1,700만원	5백만원 이하	
부담형식	여측 부담	공동 부담 혼수 2천만원은 신부측 부모	양측 부모 공동 부담	부부의 저축 및 양가부모 도움, 혼수는 신부측 부담	공동부담	
신혼여행지	몰디브	호주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주거형태	24평 아파트	40평 아파트	41평 아파트	26평 단독주택 친정부모 동거	28평 아파트	
주택소유여부	유	유	유	친정부모 소유	유	
주거마련 비용과 방식	2억 5천만원 아내 부모가 부담	1억 5천만원 남자 저축 및 남편 부모 부담	9천만원 대출 및 남편 부모 부담	시부모 부담 예정	양가부모 지원 부부 저축	
자녀수와 양육방식	1남 1녀 계획 직접 양육	무	2명 시어머니 양육 및 유치원	1명 임신중 보육시설 이용 2명 더 계획	1녀 시부모가 양육	
부부간 문화 생활양식	스포츠클럽 회원, 휴가 때는 해외여행, 문화생활 비용은 양측 부모가 부담	헬스 및 스쿼시, 외식, 연극 및 뮤지컬 관람, 주말엔 교외 드라이브, 수상스키 및 스키, 피부관리, 스포츠 마사지	주말에 외식, 영화 관람, 요가 및 헬스	한달에 2~3번씩 등산, 외식	1주에 2회 영화관람, 외식 자주, 헬스 및 마라톤, 야채위주 웹빙 음식	

〈표 7〉 계속

		6	7	8	9	10
면담 대상자	성별	남	남	남	남	남
	연령	30	32	33	34	32
	최종 학력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직업	고등학교 교사	회사원	회사원	고등학교 교사	공무원 7급
	월평균 소득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50만원	180만원
	부모의 계층적 지위	중	중	중하	하	중상
배우자	성별	여	여	여	여	여
	연령	27	28	28	30	28
	최종 학력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직업	초등학교 교사	대학병원 간호사	주부	고등학교 교사	공무원 7급
	월평균 소득	150~200만원	220만원		200만원	150만원
	부모의 계층적 지위	중상	중	중하	하	중
교제 기간과 방식	3년 교제 주로 취업 준비로 바쁨, 주말에 만남	6년 교제 레스토랑, 커피숍에서 만남, 영화관람, 시외 드라이브	1년 교제 영화관람, 외식, 드라이브, 배우자 동네나 시내에서 만남, 주로 남자 부담	3년 교제 월 1회정도 시외로 데이트, 주로 남자 부담	7년 교제 시내에서 만남, 자동차 이용 여행	
인연 계기	소개팅	같은 동아리 활동	아는 분의 소개	같은 고등학교 근무	캠퍼스 커플	
결혼비용	양가 부담없이 간소하게 함	주택 마련 포함 2억 2천만원	주택 마련 포함 6천만원	3천만원	주택 마련 포함 7,500만원	
부담형식	공평하게 양측 부담 혼수 거절	공동 부담 혼수는 신부측 집은 신랑측	공동 부담 혼수는 신부측 집은 신랑측	결혼전 결혼자금 모음 혼수는 신부부담	모아놓은 자금 천만원 나머지는 양가 부모가 반반씩 부담	
신혼여행지	중국	호주	제주도	동남아	필리핀	
주거형태	38평 아파트 시어머니와 동거	25평 아파트	28평 아파트	27평 아파트	19평 아파트	
주택소유여부	무	유	전세	유	유	
주거마련 비용과 방식	5천~1억 전세 예상 적금	1억 3천만원 남편 저축 및 남편 부모 도움	4천 8백만원 저축 및 은행대출	7천만원 남편 저축 및 대출로 마련	5,350만원 양가 부모의 지원, 은행 대출	
자녀수와 양육방식	1~2명 계획 직접 양육	1녀 시부모가 양육 월 50만원	1녀 월 2,30만원 직접 양육 시어머니 도움	1명 친정어머니 양육	적금으로 양육비 마련 중 시부모에게 위탁 예정	
부부간 문화 생활양식	주말에 외식 영화관람, 운전, 헬스 월 2회정도 야외 나들이	생식, 건강보조식품, 스쿼시, 헬스, 수영, 테니스, 홈시어터 장만, 외식, 주말여행 월 70~90만원	월 2, 3회 영화관람, 외식, 불링 월 5만원	평일 오후 외식이나 영화관람, 산책 생식 및 한약	조깅, 홈시어터, 주말에 여행, 영화관람, 주로 웰빙레스토랑 이용	

〈표 7〉 계속

		11	12	13	14	15
면담 대상자	성별	여	남	남	여	여
	연령	24	29	33	30	33
	최종 학력	고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직업	주부	중소기업 근무	회사원	전 사무직, 주부	출장 과외
	월평균 소득		200만원	200~250만원	전 90만원	100만원
	부모의 계층적 지위	하	중상	중상	중하	상하
배우자	성별	남	여	여	남	남
	연령	33	26	32	30	35
	최종 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졸	대졸	대학원졸 박사학위
	직업	화물차운전기사	중학교 교사	언어치료사	컴퓨터프로그래머	시간강사 출장 과외
	월평균 소득	230만원	25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250만원
	부모의 계층적 지위	중하		상하	중	하상
교제 기간과 방식	10개월 교제 주말에 주로 시내음식점 이용, 주로 남자가 부담	3년 교제 학교나 시내에서 만남, 영화관람이나 시외로 드라이브 주로 남자 부담	2년 교제 교외 드라이브, 전통찻집, 영화관람, 초기엔 남자 부담, 나중엔 공동	3년 교제 영화관람, 장보기, 비용은 반반 부담	10년 교제 교외, 시내 카페, 학교에서 만남, 영화관람, 초기엔 남자, 나중엔 반반	
인연 계기	주유소에서 만남	소개팅	결혼중개소	같은 직장 카풀을 통해	같은 교회	
결혼비용	주택 마련 포함 1억 8천만원		4천 7백만원		2천 5백만원	
부담형식	주택은 신랑측 혼수는 신부측 부담		신랑 2천만원 신부는 2,700만원 부모 도움 받음	두 사람이 모이돈 돈으로 해결	연애시절부터 적금 신랑, 신부 공평하게 부담	
신혼여행지	제주도	괌	푸켓	태국	동남아	
주거형태	25평 아파트	35평 아파트	32평 아파트	25평 회사 사원 아파트	25평 아파트	
주택소유여부	유	유	전세	보증금	유	
주거마련 비용과 방식	1억 5천 신랑측 부담	8천만원 모은돈 2천만원 나머지는 양측 부모 공동 부담	자신들의 저축 및 남편 부모 7천만원 부담	자신들의 저축으로 보증금 해결	여자 아버지에게서 증여 받음	
자녀수와 양육방식	1남 월 30만원 직접 양육	1녀 보육시설 이용 월 30만원	1명 월 20만원 시부모와 친정 부모가 양육	1명 임신중 직접 양육 예정	1명 계획 직접 양육 혹은 부모 도움 예정	
부부간 문화 생활양식	월 23만원 영화관람, 외식, 여행	헬스, 주말에 영화 및 연극 관람, 교외 드라이브, 월 2회 외식 월 37만원	월 1회 영화관람, 외식, 주말엔 시골 찾아감, 홈서비스 식사, 아파트내 체육시설 이용	월 60만원 산책, 헬스 임신중이라 영화, 외식, 여행 자제	주말에 영화 관람, 외식 월 10만원 내외	



〈표 7〉 계속

		16	17	18	19	20
면담 대상자	성별	여	남	남	남	여
	연령	31	31	32	34	29
	최종 학력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직업	주부	제약회사 근무	회사원	대기업 회사원	8급 사회복지직 공무원
	월평균 소득		150만원	330만원	350만원	160만원
	부모의 계층적 지위	중	하	중	중상	하
배우자	성별	남	여	여	여	남
	연령	32	28	29	32	33
	최종 학력	대졸	대졸	대졸	대졸	대졸
	직업	인테리어 기사	주부	교직원	초등학교 교사	시간강사 출장 과외
	월평균 소득	200만원		220만원	200만원	180만원
	부모의 계층적 지위	중	중상	중	하	하
교제 기간과 방식	10년 교제 학교 주변에서 데이트, 반반 부담	6년 교제 시내 극장 및 카페, 공원에서 만남 가끔여행, 공동 부담	1년 6개월 교제 저녁식사 및 차, 교외드라이브, 등산, 영화, 스포츠관람 및 운동	2년 교제 직장이 달라서 주말에 서울에서 만남, 주로 남자가 부담	2년 교제 카페이용, 사내 커플이라 공적 만남이 잦음, 주로 남자 부담	
인연 계기	캠퍼스 커플	같은 과 선후배	소개팅	남편 숙모의 중매	같은 음식무소 근무	
결혼비용	2천만원	3천만원	4천 3백만원		주택마련 포함 6천만원	
부담형식	양측 집안이 반반 부담 혼수는 거의 하지 않았음	결혼전부터 저축 양가부모 지원	공동부담	남자측이 주도적으로 부담, 여자는 혼수 준비	신랑측이 전세자금 부담, 신부측이 혼수 부담	
신혼여행지		필리핀	필리핀	태국	제주도	
주거형태	24평 아파트	24평 아파트	17평 빌라	34평 아파트	17평 아파트	
주택소유여부	전세	유	전세	유	전세	
주거마련 비용과 방식	6천만원 양가 부모의 지원	7천 5백만원 은행대출 및 결혼 준비적금, 축의금	5천만원 본인의 재테크 및 적금	남편의 부모가 마련해줌	2천 5백만원 신랑측 부담	
자녀수와 양육방식	1남 1월 10만원 직접 양육 곧 보육시설 이용 예정	1남 1녀 희망 1인 월 50만원 친정부모에게 위탁	2명 계획 월 120만원 친정부모에게 위탁 및 보육시설 예상	1남 지역탁아소 이용	1명 임신중	
부부간 문화 생활양식	외식, 집에서 영화감상	영화관람, 시택부모와 근교여행, 새벽에 짬질방	연극 및 음악회 관람, 월1회, 스포츠센터 이용, 주말농장 가꾸기, 가끔 등산	가끔 외식이나 영화관람, 휴가때 해외나 제주도 여행	월 10만원 월 3,4회 외식, 산책	

〈표 7〉 계속

		21	22	23	24	25
면담 대상자	성별	여	여	여	여	여
	연령	26	29	30	30	27
	최종 학력	대졸	대졸	대졸	전문대졸	전문대졸
	직업	초등학교 교사	치과의사	대기업 회사원	국립대학병원 행정직	은행원
	월평균 소득	210만원	200~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30만원
	부모의 계층적 지위	중	중	중	중하	중
배우자	성별	남	남	남	남	남
	연령	28	31	34	31	32
	최종 학력	대졸	대졸	대졸	대졸	전문대졸
	직업	초등학교 교사	치과의사	대기업 회사원	대기업 회사원	자동차판매팀장
	월평균 소득	22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
	부모의 계층적 지위	중	중상	중하	중	중
교제 기간과 방식	7개월 교제 평일 저녁을 주로 함께함, 휴일에는 근교 여행, 남자측 70% 부담	학교에서 만남, 주말에 문화생활, 짧은 여행, 대부분 남자 부담	10개월 교제 회사에서 주로 만남, 경비는 대부분 남자 부담	1년 교제 대구에서 만남, 경비는 직장인이었던 여자 부담	7년 교제 교내 데이트, 시내에서 영화관람 및 식사, 여행, 주로 남자 부담	
인연 계기	같은 동아리	캠퍼스 커플	사내커플	친구의 가족	같은과 선후배	
결혼비용	주택마련 포함 7천 4백만원	3천만원		3천만원	주택마련 포함 1억 4천만원	
부담형식	신랑측이 주택 및 부대비용 6천 4백만원 신부측이 혼수 천만원		신랑이 60%, 신부가 40% 부담	신부측에서 부담	신랑측 주택마련, 신부측이 혼수 결혼 식비는 공동부담	
신혼여행지	터키	하와이	호주	괌	필리핀	
주거형태	32평 아파트	35평 아파트	아파트	34평 아파트	24평 아파트	
주택소유여부	전세	유	전세	유	유	
주거마련 비용과 방식	5천 7백만원 남편 부모의 3천만원 지원, 남편 저축 2천 7백만원	3억 양가부모 지원 및 각각 저축한 금액, 축의금, 대출	1억 8천만원 남편 부모가 80%, 아내 저축으로 20% 부담	2억원 남편 부모가 보조해줌	9천만원 남편 저축 6천만원, 3천만원 대출	
자녀수와 양육방식	2~3명 계획 직접 양육 및 시부모에게 위탁	2명 계획 시부모에게 위탁 혹은 유아시절	직장을 그만 두면 가질 계획 직접 양육 계획	1녀 친정어머니가 양육, 월 50만원, 아이가 더 크면 직장 그만둘 생각	2명 계획 시 부모, 친정부모 위탁 혹은 보육시설 이용	
부부간 문화 생활양식	신앙을 바탕으로 생활, 영화관람, 외식, 방학을 이용하여 여행	주말에 영화관람, 외식, 등산, 헬스	월 1,2회 영화관람 및 외식, 스포츠 관람	주말부부, 가끔 외식	주말에 영화관람, 가끔 뮤지컬 관람, 홈시어터 장만, 2주 1회 여행, 요가, 헬스, 수영, 볼링, 포켓볼, 외식, 월 20만원	

〈표 7〉 계속

		31	32
면담 대상자	성별	남	여
	연령	32	34
	최종 학력	고졸	고졸
	직업	회사원	
	월평균 소득	250만원	
	부모의 계층적 지위	별세	중하
배우자	성별	여	남
	연령	33	34
	최종 학력	고졸	고졸
	직업	주부	공장 사원
	월평균 소득		200만원
	부모의 계층적 지위	별세	중하
교제 기간과 방식	동거생활 5년, 월세 20만원 단칸방에서 시작	5년교제, 회사에서 데이트, 영화관람, 외식, 비용은 각자 부담	
인연 계기	같은 직장	사내커플	
결혼비용		주거 마련 3천만원	
부담형식	친척 도움 없이 스스로 모은 돈으로 해결	모아둔 돈과 부모의 지원으로 남편이 주거 마련으로 이천만원, 아내는 나머지 비용으로 천만원	
신혼여행지	가지 않음	제주도	
주거형태	방2칸 집	전세	
주택소유여부	전세	전세	
주거마련 비용과 방식	1,500만원, 둘의 저축 천만원, 대출 오백만원	2천만원 남편이 마련	
자녀수와 양육방식	1녀 직접 양육	1남 월 35만원 보육시설 이용	
부부간 문화 생활양식	가끔 외식, 주말에 영화관람, 야구경기 관람	월2회 장보기, 월3,4회 외식, 주로 TV 시청	

참고문헌

---

- 공무원저널(www.psnews.co.kr), 2006, 〈1977년부터 2006년까지의 출원현황 분석 결과〉.
- 노동패널팀, 2006, 《제7차(2004)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 마스터카드, 2006, 《아시아의 미래 소비자시장을 형성하는 10가지 역동적인 트렌드》, 마스터카드 보고서.
- 이광규 외, 1996, 《가족의 관계역동성과 문제인식》, 집문당.
- 인터넷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 2006, 〈맞벌이 직장인 실태〉 설문조사 결과.
- 조운영, 2007,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 출산과 노동공급 동시 장려방안을 중심으로〉, KDI정책포럼 제174호.
- 통계청, 《2004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 A Proposal of State Policy for the Emerging Family in the Period of Social Dichotomization

Gyu-Won Kim\*

Korean society is nowadays confronted with the social problem of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world and a rapidly aging population. This study addresses that the social dichotomization among the emerging families should b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and aging trend, on the ground that the life quality and the childbirth of the new couples depends upon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parents. Therefore, it proposes that instead of private resources an integrated state policy for the emerging families should help their soft-landing in a preventive way.

**Key words:** the Emerging Family, Family Policy, Social Dichotomization

---

\*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